

# 가야, 가야문화

申 敬 澈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教授

## I. 머리말

가야사가 우리 나라 고대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높다. 뿐만 아니라, 가야사는 자국사인 동시에 국제사라 규정해도 좋을 정도이어서 가야사의 해명 없이는 우리 나라 고대사의 올바른 복원은 물론,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국제관계사의 해명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사는 여전히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측 문헌에 의한 가야사의 복원은 '532년 금관가야의 신라투항, 562년 대가야의 멸망' 등 겨우 몇 가지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가야의 성립과 전개·특질·문화 등 핵심적인 문제에는 한 걸음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고고학적인 방법밖에 없다.

근년 가야유적에 대한 괄목할만한 발굴성고가 축적되어져, 이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적 연구는 활발하다. 그래서 이번의 강좌에서는 이와 같은 최신의 고고학적 연구성고를 바탕으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가야전반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최근 가야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주로 가야 성립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가야문화의 특질을 부각시켜 보도록 하자.

## II. 3세기말의 대변혁

가야는 영남의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주로 낙동강 서안에 위치한 여러 소국을 말한다.

그런데 가야의 성립과 동인은 문헌사학과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가 수궁할 만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이들테면 문헌사학의 경우 「가야」의 어원과 변천 및 문헌에서의 등장상을 중시하여 추론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때로는 고고학의 성과를 보태어 가야의 시작을 대체로 기원전후를 간주하고 있음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빈약한 문헌을 바탕으로 한 추측인데다 고고학 성과를 인용하여 보태었다하더라도 고고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문적인 뒷받침이 된 것은 아니다.

문헌사학의 이러한 불투명에 비하면 고고학은 보다 명확하다.

단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강좌에서 말하는 「가야」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대응하는 한정사로서 사용하는 것이며, 그 앞 시기의 삼한시대의 「변한」(또는 변진)과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별하고 싶은 것이다. 즉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집단체로서의 「가야」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야의 성립은 한반도 남부에서의 「신라」 「백제」의 성립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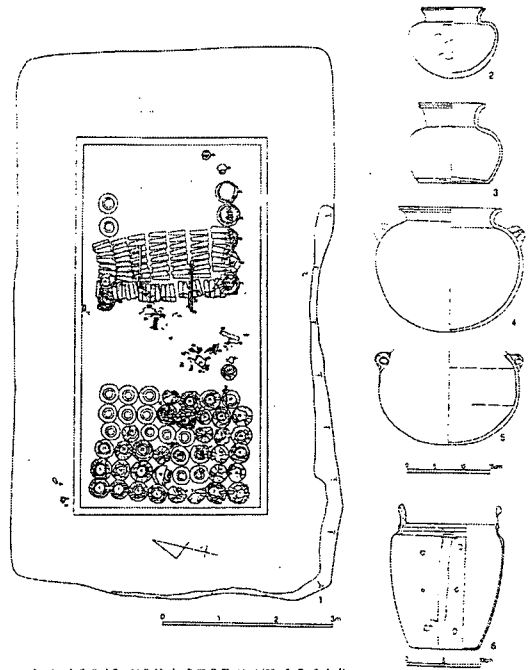
이점을 구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신라·가야토기로 불리어 지는 도질(陶質)토기이다. 즉 도질토기의 등장상을 기점으로 가야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북방적 문물·문화의 급속한 확산이 그것이다. 토기를 비롯한, 이에 대한 몇몇 중요한 점을 적기(摘記)해보자.

### 1. 도질토기(제1도2-5)

도질토기는 섭씨 1200도 전후의 고화도에서 구운 환원염소성(還元焰燒成)의 단단한 토기이다. 일부에서 회청색 경질토기(灰青色硬質土器)로도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가야토기가 그것이다. 도질토기 출현 직전의 삼한시대토기인 섭씨 700~ 800 도의 저화도 환원염소성인 와질토기(瓦質土器)-일부에서는 회색연질토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토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질토기는 최근의 조사 및 성과에 의하면 3세기말 금관가야의 중심부인 낙동강하류역의 김해·부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여 영남각지로 파급되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도질토기는 반드시 양이부호(兩耳附壺)(제1도5)의 형태로 나오거나 혹은 양이부호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 양이부호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양이부호는 중국북방의 특유한 토기여서, 가야의 도질토기는 재래의 와질토기문화의 기반위에 북방토기문화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도질토기문화의 배후에는 북방토기문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유념되는 것은 이러한 도질토기가 한반도 남부의 어느 지역보다 김해·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질토기가 단순한 문화파급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는 것이다.



제1도 김해대성동 23호분과 출토유물<1, 80>, 2-5, 6 1/4>  
1 김해형 유곽묘, 2-5 도질토기, 6 오리도스경 銅鏡

### 2. 순장(殉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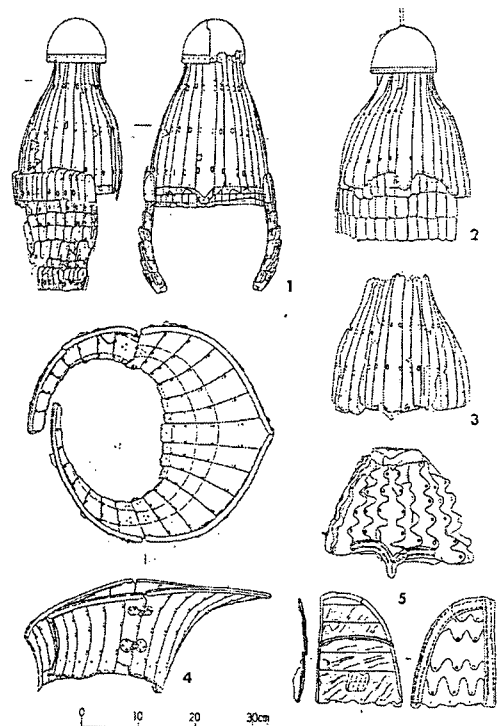
도질토기와 함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낙동강 하류역 - 김해·부산- 에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으로 순장(殉葬)이 있다.

순장은 주인이 죽으면, 노비나 가신(家臣)을 함께 묻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습속은 이전에 한반도 남부에는 없었으며, 양이부호와 함께 낙동강하류역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순장과 양이부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시 순장은 부여를 비롯하여 북방유목민족세계에 채용되고 있었던 습속으로 이것이 남하한 것임이 분명하다. 즉 북방적 습속이다.

한편 순장은 고구려·백제의 고분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라는 가야의 영향에 의해 4세기 중엽이후부터 채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순장도 도질토기와 마찬가지로 3세기말 ~ 4세기 초 낙동강하류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전파, 파급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가야성립의 배경을 구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순장의 습속이 금관가야지역의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곳은 김해대성동(金海大成洞)고분군과 동래북천동(東萊福泉洞)고분군인데 이들은 각각 낙동강하류



제2도 적양계 갈수<1/6>  
1 동래북천동 21호분, 2·4 동래북천동 11호분, 3 동래북천동 10호분, 4 왕천유언 M3호분

역의 서안과 동안지역을 관할하는 지배자집단들의 공동묘지이다. 그래서 금관가야의 성립을 대성동집단과 복천동세력의 연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순장자의 수·부장유물의 質으로 보아 대성동고분군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 3. Ordos형 동복(銅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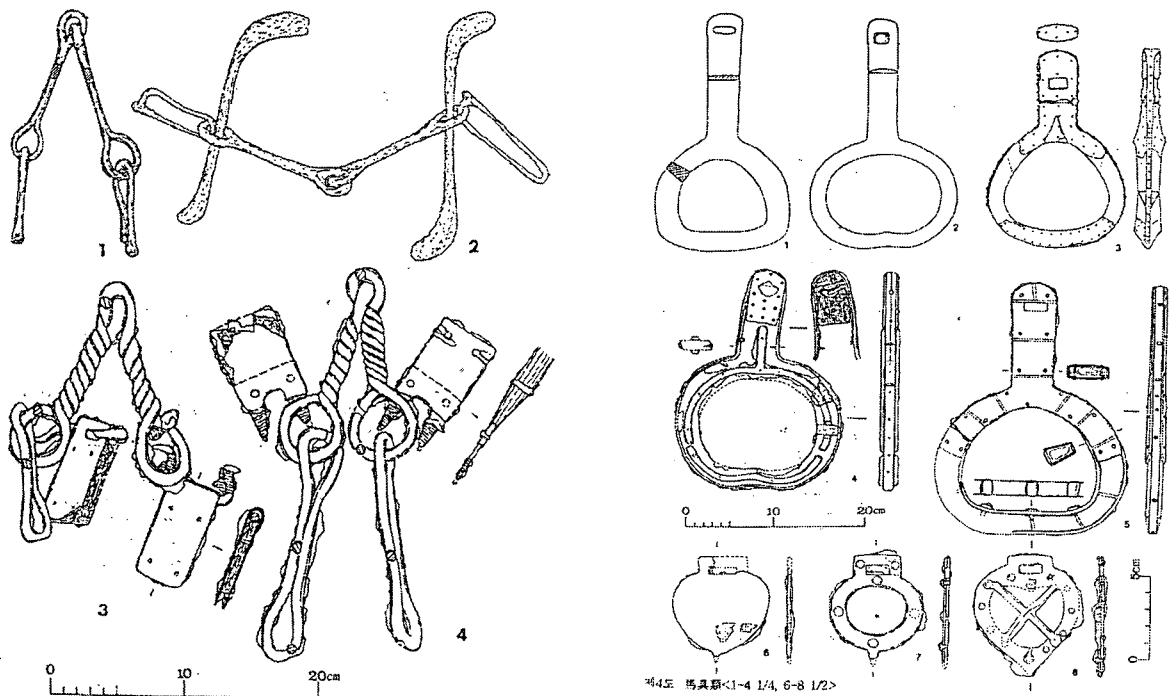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도질토기와 순장의 원류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오르도스」형 동복(제1도 6)이라는 것이 있다. 오르도스형 동복은 북방유목민족의 특유한 「청동술」으로 최근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모두 3점이 발견되었다. 가야지역에서 이 「오르도스」형 동복은 그 소유자가 지배자층에 한정되는 매우 귀중한 물품인데, 이것이 동래복천동고분군에서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고, 김해 대성동고분군·양동리고분등 김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였듯이 금관가야, 즉 가야의 성립이 김해대성동고분군과 동래복천동고분군의 연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성동고분군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해 출토의 이 동복은 3세기말 도질토기의 출현과 동시에 등장하는 점, 또 북방문물이라는 점에서, 도질토기와 동반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동복은 제작기법과 형태의 특징 등에서 그 제작지가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吉林省)북부, 즉 부여의 고지(故地)로 여겨지는데, 이점은 가야문화의 원류 및 성립을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 4. 무기의 훼손행위

2세기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김해 대성동 45호분에서는 대도(大刀)를 일부러 구부러 부장시킨 예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의 가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굴조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무기를 일부러 훼손하여 무덤에 부장하는 행위는 흉노, 선비, 부여등 북방유목민족에서 행해진 특유한 습속으로, 이것이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동복의 등장과 동시에 가야의 장송의례(葬送儀禮)에 채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3도 古式제갈(鐵帶)<1/3>  
1·2 중국 檢樹岩河深 中層墓, 3 동래 복천동71호분, 4 동래 복천동 69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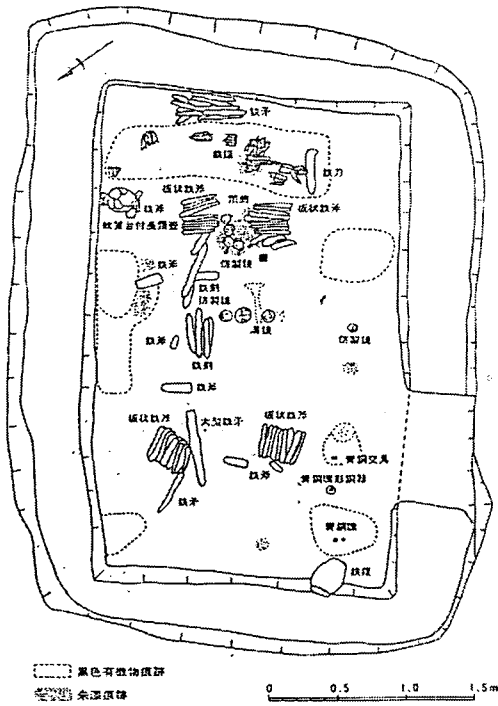
제4도 馬具類<1-4 1/4, 6-8 1/2>  
1 중국 銅鑄通台子 鐵鍔, 2 중국 孝原屯 鐵鍔, 3 중국 漢陽形鐵鍔 동래 복천동 22호분, 4 동래 복천동 22호분, 5 동래 복천동 10호분, 6 김해 대성동 3호분, 7 김해 대성동 1호분, 8 동래 복천동 35호분

### 5. 갑주(甲冑)와 마구(馬具)

3세기말 이와 같은 북방적 문물, 습속의 등장을 기점으로 가야지역에서 철제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기마용의 마구가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음이 극히 유의된다.

갑주는 북방유목 민족특유의 기마용 갑옷과 투구의 전적인 영향에 의해 제작된 것(제2도)과, 재래의 영남지역의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갑옷이 「모델」이 된 영남지역 특유의 철제갑옷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북방의 갑주는 말할 것도 없고, 영남지방특유의 목갑(木甲)·피갑(皮甲)이 철제화된 것도 그 배후에는 북방의 갑주문화가 작용하고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갑주들이 가야지역에서 철제(鐵製)의 형태로 다량 출토되고 있음이 극히 주목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갑주의 원류지인 북방유목민족의 무덤에서는 철제갑주의 출토예가 드물며, 거의 피제갑주(皮製甲冑)가 보편적임에 비해, 가야에서는 오히려 철제갑주의 출토량이 북방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보호에 보다 효율적인 철제갑주가 다량 제작된 것은, 가야가 「철의 왕국」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가야지역의 왕성한 철기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제5도 김해 양동리(동)162호묘—영남지역 最古의 목곽묘

한편 기마용 마구(제3·4도)로 이 무렵에 김해·부산의 지배자 집단 고분-대성동, 북천동고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데, 최근의 상세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이들의 직접적인 원류지도 중국동북지방, 즉 선비, 부여로 판명되고 있다. 즉 마구의 원류지도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 동북·무기의 훼손행위·갑주등 북방문물·습속의 원류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마용마구의 등장은 극히 중요하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부터 비로소 원거리의 정복전쟁이 가능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어쨌든 철제갑주와 기마용마구의 등장은 이때부터 가야의 사회가 본격적인 군대의 보유와 함께 무장적사회(武裝的社會)로 돌입하였음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된다.

### 6. 묘제(墓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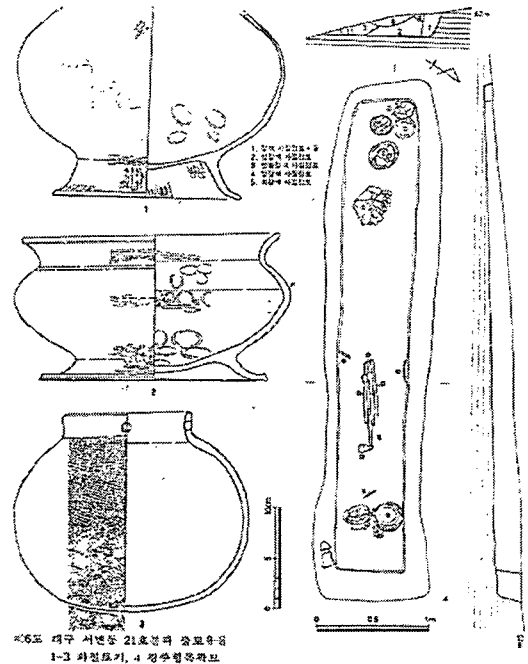
3세기를 전후한 이 무렵의 영남지역의 묘제는 목곽묘(木槨墓)이다. 「곽」이란 중국에서는 2중관(二重棺)을 지칭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시신(屍身)과 함께 다량의 부장유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매장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곽」의 앞의 시기는 「관」(棺)의 시기였다. 「관」이란 기본적으로 시체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매장시설이므로 다량의 물품을 부장(副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곽」의 출현은 특정개인에게의 물품(재산)의 집중이 가능한 무덤이므로, 이때부터 현저한 계급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남지역에서의 목곽묘의 등장은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2세기 후반-양동리 162호묘(제5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 동북·무기의 훼손행위와 같은 북방문물·습속의 출현과 동시에 목곽묘에도 일대 변혁이 간취된다. 즉, 이전의 목곽묘는 변한(나중의 가야), 진한(나중의 신라)지역이 구별되지 않고,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에 비해 3세기말부터는 가야와 신라지역의 목곽묘는 서로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2세기후반에서 3세기후반까지의 영남지역-변한·진한 지역-은 목곽묘의 묘광(墓坑)은 너비대 길이의 비율이 2 : 3 정도되는 폭넓은 목곽묘(제5도)를 공동의

묘제로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3세기말이 되면, 김해·부산을 주축으로 하는 가야지역은 폭넓은 목곽묘를 묘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지역은 너비 : 길이가 1 : 3~5정도의 세장(細長)한 묘광의 목곽묘를 채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나는 전자(前者)의 목곽묘를 「김해형목곽묘」(제1도1), 후자를 「경주형목곽묘」(제6도4)로 명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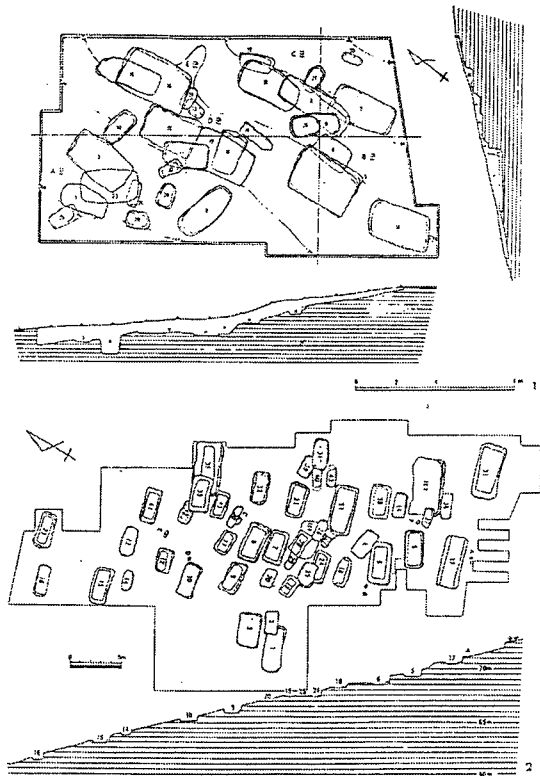
이처럼 3세기말 북방문물·습속의 출현과 동시에 그동안 공동의 묘제였던 목곽묘가 갑자기 「김해형목곽묘」와 「경주형목곽묘」로 분화된다는 것은, 이때부터 양지역이 상호대립, 긴장관계에 들어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후술하듯이, 경주형목곽묘의 등장은,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동복·무기의 훼손행위·갑주로 상징되는 강력한 무장집단의 낙동강하류역의 돌출에 따른,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위기의식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이는 도질토기·순장의 습속이 낙동강하류역-김해·부산-에 가장 먼저 출현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제6도 대구 서면동 21호분과 장묘유적  
1-3 도질토기, 4 경주형목곽묘

7. 선행분묘(先行墳墓)의 파괴(제7도)

이와 같이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동복·무기의 훼손행위·갑주와 마구등 북방문물·습속의 출현, 「김해형목곽묘」와 「경주형목곽묘」으로 분화와 동시에, 낙동강하류역에서는 북방문물, 습속을 간직한 「김해형 목곽묘」가 나타나면서 앞 시기의 무덤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음이 유 의된다.



제7도 선행분묘 파괴의 예  
1. 김해 양동리(문) 분묘군, 2 부산 노포동 분묘군

그런데 이 현상을 의도적인 선행분묘의 파괴라기보다도 일본 「야요이」 시대의 옹관묘끼리의 중복영조된 사례로 미루어 보아 중복된 목곽묘는 서로 친족(親族) 관계로 설명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①선행분묘의 파괴현상이 앞 시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 ②북방문물·습속의 유입과 동시에 선행무덤에 대한 파괴행위가 낙동강하류역의 각 유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 ③후행무덤-김해형 목곽묘-이 앞 시기 무덤의 바닥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 생각을 따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동시에 이상과 같은 이유들은 3세기말의 이 현상은 김해형목곽묘의 출현과 동시에 행해진 「선행분묘의 의도적 파괴」로 볼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북방적 문물·습속을 지닌 「김해형목곽묘」가 출현하면서 앞 시기의 무덤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앞 시기의 체제와 관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도 좋다. 즉 이 점은 3세기말 낙동강하류역의 지배자집단의 교체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징표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방문물·습속의 유입을 말해주는 것으로 후장(厚葬)·목곽을 불에 그을리는 행위·무기의 변화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 III. 가야성립의 동인

지금까지 3세기말 가야지역의 일대변혁을 알리는 여러 고고학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북방문물·습속, 그리고 묘제에서 간취되는 긴장·대립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이에 접근하기전 우선 명확히 해 놓아야 할 것은 도질토기·순장·「오르도스」형 동북 무기의 훼손행위 등은 모두 동시기에 낙동강하류역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상호불가분의 동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북방문물·습속의 낙동강하류역 등장의 요인으로, 우선 설명이 가능한 것은 「북방문화의 전파론」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단순한 문화의 전파에 기인한 것이라면, 도질토기·순장이 우선 중부지역으로부터 차츰 남하하는 현상이 간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들이 한반도의 가장 동남단인 낙동강하류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화전파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이들 북방문화를 문헌에 보이는 3세기말 진한-나중의 신라-과 서진(西晉)의 교섭기사에서 보이듯이, 교섭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즉, 「교역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북방문화가 어느 곳보다도 경주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실제로는 낙동강하류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견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북방문화의 등장과 동시에 「김해형목곽묘」(제1도1)와 「경주형목곽묘」(제6도4)의 분화라는 긴장·대립의 현상은 단순한 「교역론」의 차원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 제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3세기말 특정지배자집단-특정종족-의 이동에 의한 소산이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토기·동북·갑주와 마구 등, 북방문물, 즉 북방의 「물질문화」만의 유입이라면, 그 전파「루트」는 어떻든, 전파에 의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나 ①이러한 「물질문화」와 동시에 순장·무기훼손의 행위 등 북방습속, 즉 북방의 「정신문화」가 동반되고 있는 점은 이런 습속을 지닌 종족의 이주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에서 순장의 존재는 극히 중요하다). ②북방문물·습속의 낙동강하류역의 등장과 동시에 이 지역의 선행분묘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점. ③북방문물·습속의 등장과 동시에 그 동안 영남지역의 공통의 묘제였던 목곽묘가 갑자기 「김해형목곽묘」와 「경주형목곽묘」로 분화하는 점. 이는 대립·긴장의 소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은 특정종족의 이주의 산물로 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특정종족이란, 앞의 「오르도스」동북에서 엿보았듯이, 부여족일 공산이 지극히 크다. 또한 부여에서는 위의 제Ⅱ장에서 설명한 모든 문물·습속을 구비하고 있어, 그럴 개연성을 일층 높여주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이 비판적 견해는 ①학계의 기왕의 견해를 답습한 선입감에 기인하거나, ②비판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제문제를 극복할 정도의 충분한 논거와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지엽적인 지적에 머무르고 있거나, ③최근의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논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반론이라 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논의의 시발점에 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의 토론의 활성화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어 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어쨌든, 고고학적 자료에 간취되는 3세기말의 가야지역의 대변혁이 특정종족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면, 묘제상으로 「김해형목곽묘」지역은 이른바 금관가야를 중핵으로 하는 가야연맹의 성립, 「경주형목곽묘」를 장제로 채택한 지역은, 사로국을 정점으로 하는 사로연맹-신라-이 이때 결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즉 가야의 성립이자, 신라의 태동인 것이다.

이점은 위에서 예로든 고고학적 자료 외에, 다른 고고학적 현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문헌사학에서 보편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1~2세기대의 이른바 「초가야연맹」의 성립론은, 이와같이 고고학으로부터는 전혀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기원 1~3세기대 김해를 중심으로

「초기가야연맹체」의 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고 단정해도 좋다.

#### IV. 맺음말

가야사의 연구를 위해서는 가야의 출발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절대필요하다. 그것은 가야사의 전개와 본질·성격을 구명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강좌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초점을 매우 좁혀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당시 일본과도 여러 형태로 연동되므로, 반드시 넓은 시야에서도 이 문제를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이 논의의 주요재료가 되는 고고학적 자료가, 최근 낙동강하류역의 가야유적 발굴조사에서 집적되고 있다. 또 빈곤한 문헌자료에서가 아닌 순수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가야사와 가야문화의 전반적인 복원을 시도할 만한 것이나, 이것도 다음 기회의 강좌에 기약할 수밖에 없다.